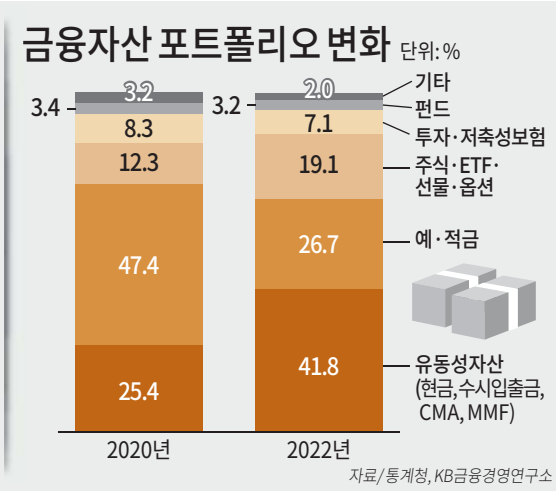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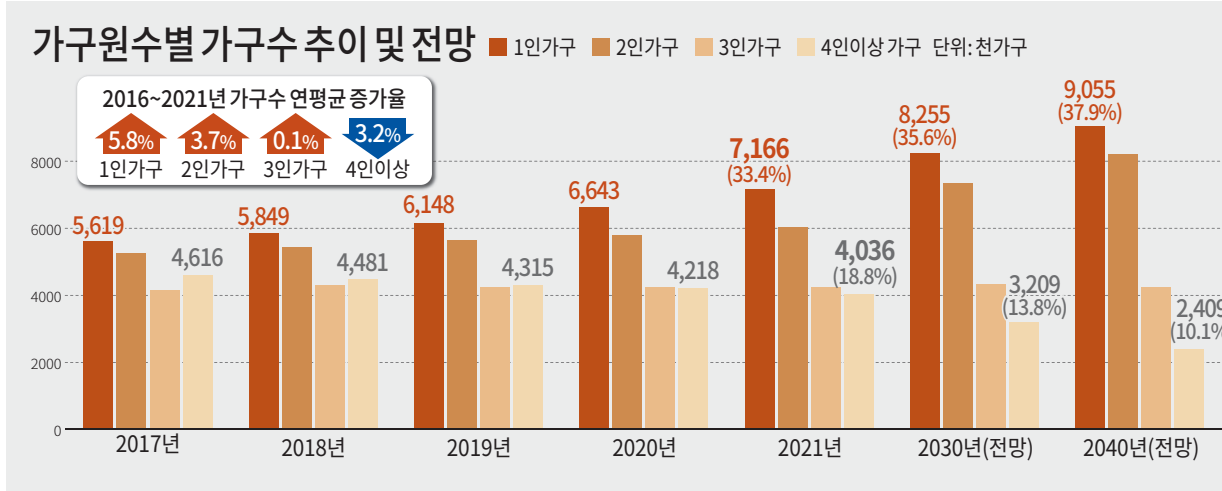


# “올로 보다 현실”... 1인가구, 지출 줄이고 저축 늘렸다

(YOLO·인생은 한 번뿐)

KB금융 2022 한국1인가구 보고서  
지난해 716.6만가구... 20대 최다  
은퇴대비 금융상품 1위 개인연금  
실손·질병 등 보험가입 비중 증가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사상 최초로 700만가구를 넘어섰다. 세 가구 중 한 곳은 1인가구인 셈이다. 올로(YOLO·인생은 한 번만 산다) 가치관을 갖고 저축 대신 소비를 많이 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올해 1인가구는 월 소득에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렸다. 다만 은퇴를 준비하는 비중은 15.9%에 불과해 노후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사상최초로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1인가구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가장 많았고, 30대(17.1%), 60대(16.4%)가 뒤를 이었다.

1인가구의 연소득은 3000만원 미만 이 73.2%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77.4%) 대비 4.2%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비중은 17.4%로 전년 대비 2.7%p 올랐고, 7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비중도 2.7%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똑똑한 자산관리 필수...비상자금 마련 N잡러 ↑

특히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소득과 지출, 자산에 대해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가구의 지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로 전년(57.6%) 대비 13.4%p 감소했고, 저축과 대출은 각각 44.1%, 11.7%로 9.8%p, 3.5%p 증가했다.

다양한 부업을 통해 여유·비상자금을 마련하는 1인가구도 늘었다. 20대,

30대의 부업은 앱테크, 배달 라이더, 소셜크리에이터, 블로거 등 신생부업을 하는 경우가 95% 이상이었다. 이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여유·비상금 마련이 42%로, 생활비 마련이 16% 보다 많아 부업의 주요인이 생활고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포트폴리오는 유동자산과 주식·ETF·선물·옵션이 증가하고 예·적금 및 나머지 금융상품은 감소했다. 유동 자산 보유율은 20대가 43.6%로 전년(20.8%) 대비 2.1배 증가해 가장 많았고, 50대(43.1%), 30대(42.4%), 40대(38%) 순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상품을 해지한 뒤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1인가구는 48.5%였다. 경제상황이 급변화 하자 신규투자를 위해 유동 자산으로 대기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위험을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비중도 늘었다. 1인가구 중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지난 2020년 75.3%에서 2022년 88.7%로 13.4%p 증가했다. 1인가구가 보유한 상위 보험은 실손의료보험(69.8%), 질병보험(51.9%)이었으며 20대를 제외하고 보유율이 모두 증가했다. 20대는 질병관련 보험보다 운전자보

험을 택했다. 20대의 운전자보험 보유율은 24.9%로 전년 대비 10.1%p 늘었다.

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질병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치료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대라도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퇴 예상 63.2세...노후대비 미흡

이 밖에도 1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중형·대형 규모 거주비율이 증가해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36.2%로 가장 많았고, 연립 및 다세대 주택 35.3%, 오피스텔 19.6% 순이었다. 주택규모도 초소형·소형은 86%에서 82.9%로 3.1%p 감소한 반면 중형·대형은 14%에서 17.1%로 3.1%p 늘었다.

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공간을 넓혀 거주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향후 가족형성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다”고 말했다.

1인가구의 은퇴예상연령은 63.2세로 전 연령에서 반퇴(평균 60세) 이후 평균

3년정도 더 일하고자 했다. 반퇴는 장기간 종사하던 직장이나 본업에서 퇴직하는 것을 말하고 은퇴는 소득활동을 멈추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은퇴를 대비해 ‘현재 준비중’이라는 1인가구는 전년 대비 6.4% 감소한 15.9%로 나타났다. ‘준비도 안하고 계획도 없다’는 비율은 3.8%p 증가한 37.9%였다. 1인가구의 10명 중 약 4명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은퇴를 대비하고 있는 이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개인연금 62.5%가 가장 많았고, 퇴직금·퇴직연금 46.4%, 보험투자상품 41%, 공적연금 34.7%, 예적금 29.3% 순이었다.

KB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예·적금은 5위로 내려가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특히 30대 40대는 공적연금 외 사적인 준비방법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알립니다

### 메트로경제, 구독료 11월부터 2만원으로

메트로미디어는 오는 11월부터 유료신문 'metro경제' 구독료를 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2002년 5월 31일 창간한 무료신문 'metro'와 2018년 3월 5일 선보인 유료신문 'metro경제'를 동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비용상승에도 허리를 졸라매며 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려 애써왔으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값 및 환율 폭등으로 신문용지, 인쇄, 운송비 등이 연쇄적으로 크게 올라 5년째 유지해온 유료신문(metro경제)의 구독료 인상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층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이해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폰 · 컴퓨터 교육생 수시모집 (무료교육)

#### ◆원초부터 전문가까지

- 교육대상 : 어르신 대상 전문교육
- 교육과정(무료교육)
  - 스마트폰 활용반
  - 컴퓨터 기초반 · 활용반
  - 동영상 활용반(편집 · 제작)
  - 3D 프린터, 코딩 드론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체험
  - 무인/자율 주행기(KIOSK) 체험
- 교육시간 : 매주(월-금) 오전 · 오후 / 연중계속 \* 수시지원가능
- 교육장소 : K7마리아빌딩 별관2동 (마리아(4호선) 4번 출구 5분)
- 문 의 : ☎ 02-2636-2990
- 주 관 :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KWIC)

## 2兆 할랄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인증·생산 박차

### SPC 말레이시아 진출... 사업 본격화 신세계푸드 대박라면 2600만개 판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등 할랄 인증

식품업계가 할랄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식물성 음식과 어류 등 해산물,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와 소고기 등이 포함된다. 돼지고기는 섭취할 수 없다. 무슬림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식품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대체육과도 맞닿아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올랐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조 9000억 원대로 추정되며, 매년 10~15%씩 성장하고 있다. 타 식품군의 연평균 성장률이 1~2%인 점을 고려하면 할랄 식품의 시장성은 매우 높다.

이에 식품 회사들은 할랄 식품 생산 시설을 늘리고, 관련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드파리바게트는 지난 6월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며 할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PC그룹은 약 400억원을 투자해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할랄 인증 제빵공장 'SPC조호르바루공장' 건립에 착수했다. 말레이시아를 전초기지로 삼아 2030년까지 동남아 지역에만 6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건립되는 조호르바루의 산업단지 '누사자야테크파크'는 싱가포르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탄중펠레파스 항구와도 가까운 요충지로 동남아 전역과 동중까지 효율적으로 물류 이송이 가능하다.

사측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SPC그룹이 이미 진출한 국가들을 비롯해 향후 진출 예정인 중동 국가 등 할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양식품과 농심도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을 판매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삼양식품은 인도네시아 등에 불닭볶음면,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22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도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할랄 인증 대표 라면으로는 신세계푸드의 '대박라면'이 있다. 현지 다른 제품보다 3배 가량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8년 출시 후 현재 17개국에서 누적 판매량이 2600만 개에 달한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속 하얀 크림(마시멜로우)에 들어가는 젤라틴을 식물성으로 교체해 수출하고 있으며, hy는 지난해 'hy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마치고 이슬람권 커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빙그레는 싱가포르에 수출중인 '바나나맛 우유'와 '붕어짜만코' 등 제품의 할랄 인증을 마쳤다. 싱가포르 내 할랄 인증 발급기관 MUIS에서 인증을 받았다.

사측은 싱가포르에서 이슬람이 3대 종교로 꼽히는 만큼 이번 할랄 인증으로 해외 매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안정화 되면 인접국가인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빙그레는 2015년 말레이시아에 할랄 인증을 받은 유제품을 수출해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할랄 인증을 받으면서 향후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 부여하는 제도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할랄 인증 식품이 건강하고 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비건과 논알코올 선호 트렌드가 퍼지면서 할랄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박라면 고스트페퍼 /신세계푸드